

현안보고서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2024 | No.02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제 실태

정은이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나용우 (북한연구실장)

이우태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현안보고서 2024-02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제 실태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I. 들어가는 말	1
II. 한국·외국 방송/녹화물	2
1.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수단 진화와 당국의 단속 강화	2
2. 외국·한국 방송/녹화물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4
3. 뇌물과 처벌의 면제 및 감형	8
4.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 세대 통제	11
III. 손전화	14
1. 검열과 단속 영역의 확대	14
2. 검열 방식의 고도화와 기술적 진화	16
3. 처벌 수위 및 강화	20
4. 치솟는 뇌물 비용과 격차	21
5. 단속의 일상과 강화	25
6.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26
IV. 평가	28

표차례

〈표 I-1〉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제 관련 북한법 규정	1
〈표 II-1〉 녹화물 이용 수단의 다변화 및 소형화 관련 특이사례	2
〈표 II-2〉 빈번한 단속 관련 특이사례	3
〈표 II-3〉 가택수색 및 IT 기기 감시 관련 특이사례	4
〈표 II-4〉 IT 기기 감시 관련 기술 관료 등장	4
〈표 II-5〉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 관련 처벌 수위 추이 특이사례	5
〈표 II-6〉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유포죄 관련 특이사례	5
〈표 II-7〉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 관련 특이사례	6
〈표 II-8〉 공개폭로 모임 관련 특이사례	7
〈표 II-9〉 외국 녹화물 단속과 관료들의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8
〈표 II-10〉 한국 녹화물에 관한 처벌 및 관료들의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9
〈표 II-11〉 한국 녹화물 시청 후 직위 해제 관련 특이사례	9
〈표 II-12〉 뇌물 정액제 행태 관련 특이사례	10
〈표 II-13〉 뇌물을 바치지 못하여 처벌되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관련 특이사례	10
〈표 II-14〉 자살과 탈북으로 몰리는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 관련 특이사례	10
〈표 II-15〉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청소년 처벌 관련 특이사례	11
〈표 II-16〉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미성년자 처벌 관련 특이사례	12
〈표 II-17〉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유포죄 처벌 관련 특이사례	12
〈표 II-18〉 자살로 내몰리게 하는 청소년 처벌 실태 관련 특이사례	13
〈표 II-19〉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정보접근권 침해 관련 특이사례	13
〈표 II-20〉 청년 세대와 공개폭로모임 관련 특이사례	13

〈표 III-1〉 북한 주민의 중국 휴대전화 소지 처벌 관련 특이사례	14
〈표 III-2〉 국내 휴대전화 단속 관련 특이사례	15
〈표 III-3〉 휴대전화 관련 당국의 단속 항목 관련 특이사례	15
〈표 III-4〉 북한 주민의 남한 말투 사용에 관한 단속 증가 관련 특이사례	15
〈표 III-5〉 북한 주민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당국의 기술적 방해 관련 특이사례	16
〈표 III-6〉 도청과 감청의 대상인 북한 주민과 처벌 관련 특이사례	17
〈표 III-7〉 스파이를 동원한 북한 당국의 주민 정보 접근 통제 관련 특이사례	17
〈표 III-8〉 당국의 감청으로 짧은 통화만 가능한 북한 주민 실태 관련 특이사례	18
〈표 III-9〉 당국의 휴대전화 감청을 피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 관련 특이사례	18
〈표 III-10〉 주민 감시를 위해 첨단 장비를 갖추는 북한 당국에 관한 특이사례	18
〈표 III-11〉 정보 접근 통제를 위해 휴대전화 내 북한식 프로그램 설치 관련 특이사례	19
〈표 III-12〉 북한식 체계 도입 후 손전화에 대한 단속 강도 관련 특이사례	19
〈표 III-13〉 휴대전화의 국가 등록과 감시 관련 특이사례	20
〈표 III-14〉 중국 전화기에 대한 엄격히 통제 사유 관련 특이사례	20
〈표 III-15〉 중국 전화기를 활용한 한국 통화 처벌 수위 관련 특이사례	21
〈표 III-16〉 중국 전화기를 통한 밀수 및 처벌 관련 특이사례	21
〈표 III-17〉 손전화기 단속과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22
〈표 III-18〉 뇌물이 통하지 않는 남한 죄 관련 특이사례	24
〈표 III-19〉 남한 연루 손전화기 사용과 정치범으로 처벌되는 특이사례	24
〈표 III-20〉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특이사례	25
〈표 III-21〉 손전화기에 대한 당국의 빈번한 단속 관련 특이사례	25
〈표 III-22〉 손전화기에 관한 청소년 단속 및 처벌 강화 관련 특이사례	26

I 들어가는 말

-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임. 따라서 외부로부터 정보통제 및 주민에 대한 간섭·통제·감시 제도 또한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
-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중국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한류도 싹트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임.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사형의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음.

〈표 1-1〉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제 관련 북한법 규정

법규	구성요건	법정형
청년교양 보장법 (2021)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류입,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는 행위, 11. 우리 나라 노래를 왜곡하여 부르거나 우리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리혼, 조혼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정상에 따른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제45조)
	제 42조 1.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록화물, 편집물, 인쇄물을 만들어주거나 봉사해주는 행위, 2. 이색적인 촬영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 촬영, 편집하는 행위, 3. 이색적인 물품을 끌어들이거나 밀수, 밀매하는 행위, 4. 이색적인 결혼식봉사를 하는 행위, 5. 우리 식이 아닌 옷을 만들어 팔거나 머리단장을 해주는 행위	정상에 따른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제45조)
반동사상문 화배격법 (2020)	제28조 많은 양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소장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29조 많은 양의 성녹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유입·유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소장한 경우	사형
평양문화어 보호법 (2023)	제58조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문서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59조 괴뢰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	

-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글에서는 2010년에서 2023년 기간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주민에 대한 당국의 감시 및 통제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 침해 상황을 밝히고자 함.

II 한국 · 외국 방송/녹화물

1.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수단 진화와 당국의 단속 강화

■ CD-R에서 메모리까지 ‘소형화’

• 주민의 녹화물 이용 수단의 다변화 및 소형화에 따른 당국의 단속 회피 가능성 증대.

- 녹화물 시청 방법이 초기 CD-R에서 USB로 옮겨졌으며, 이조차도 현재는 마이크로 SD 카드로 전환되면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수단이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게 다양화 및 소형화가 이루어졌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부각이 됨.
-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노트북 및 노트북 등의 IT 기기가 북한에도 도입 및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주민의 정보접근도를 높였음. 여기서 노트북은 녹화물 복사의 기능이 구비되어 있으며 동시에 USB를 삽입하여 녹화물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겸비된 기기임.

〈표 II-1〉 녹화물 이용 수단의 다변화 및 소형화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0년	양강도 해산시 24세 여성이 한국 CD-R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됨.	NKHR2012000112 2012-06-12
2011년	CD-R 시청 시 처벌과 관련하여 이를 이유로 지옥(노동교화형) 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무조건 추방이라고 증언함.	NKHR2015000110 2015-06-02
2012년	2012년에 한국 CD-R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청소년들은 교양대상으로 노동단련대 (1~6개월) 형을 받음.	NKHR2015000134 2015-09-22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하는 37세 여성이 송평구역 장마당에서 한미 영화가 든 CD-R을 판매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함.	NKHR2013000109 2013-06-11
2013년	2013년부터 외국영화, 복사 R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고 함.	NKHR2015000112 2015-06-02
	2013년 한국 드라마 시청 시 돈으로 해결, CD만 몰수, 중국이나 러시아 CD 시청은 처벌 받지 않음.	NKHR2015000154 2015-11-17
2014년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도 10월에 동무에게 빌린 알을 노트북으로 보다가 109그루빠의 단속에 걸려 시 보안서 대기실에 수감되었고, 이후 단련대 1개월형을 받았음.	NKHR2019000022 2019-05-07
2015년	TV는 전기가 없어서 시청하기 어려움. USB 소지 여부를 단속함.	NKHR2015000122 2015-09-08
	2013년 해산시에서 한국 드라마를 CD-R로 기계 복사, 유통시킨 사람이 사형당했다고 들었음. 전기 TV는 전력부족으로 시청하기 어려움.	NKHR2015000133 2015-09-22
2016년	2019년에 탈북한 이탈주민은 2016년 간호사 학교 재학시절 USB가 단속됨. 당원이면 비판을 받고 문제가 되며, 만약 몇 십편을 보면 뇌물을 줘도 단련대행임. 원래는 교화소임. 몇 백편을 보고 교화소를 간 사람을 봤음.	NKHR2022000018-2 2023-08-01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7년	2017년도에 딸이 가지고 있던 USB에 한국 노래가 들어있어서 109상무에게 단속당함. 2018년도에 딸이 친구에게 USB를 빌려줬는데 109상무에게 검열당해 잡혀감.	NKHR202000019 2022-06-16
2018년	2018년에 형사법이 바뀌어서 한국 드라마나 녹화물 USB를 보면 5년 징역이 이루어진다는 증언이 있었음.	NKHR201900025 2019-05-18
	가택수색으로 단속당할 확률은 떨어짐, 옛날에는 CD로 봤으니 걸리기 쉬웠으나 요즘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SD로 보기 때문에 밖에서 문소리가 나면 뺏아서 쥐고 있으면 안 걸림.	NKHR202200006 2022-05-25

■ 빈번한 단속

- 그러나 한편 주민의 정보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정보에 대한 당국의 단속 빈도수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며 영장이나 인민반장을 대동하지 않고도 불시에 점검하는 사례가 조사되었음.
 - 즉, 북한에서의 한국 녹화물 시청은 사회통제가 느슨해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에 따라 2004~2005년경부터는 당국이 정보 단속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녹화물 시청을 ‘황색바람’, 즉 사상적 변질로 간주하여 가택수색 등의 방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함.
 - 예를 들어,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단속은 주로 109상무에서 매주 혹은 매달 빈번히 진행된다고 증언함.¹⁾
 - 특히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숙박검열, 불순녹화물 단속을 위해 보안원들이 불시에 집에 오는데, 영장은 본 적이 없으며, 다만 원래는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고 보안원들이 단속하는 것인데, 인민반장마저 동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이는 워낙 일상적인 일이라고 증언함.²⁾

〈표 II-2〉 빈번한 단속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4년	2004년까지만 해도 법관들이 문 열어 놓고 볼 정도로 한국 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심하지 않았음. 걸려도 비판서 작성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음. 현재는 남조선 영화의 경우 단속되면 교화를 감. 특히 쉬리, 마유미 등과 같은 정치적 색이 있는 영화는 관리 소행이었음.	NKHR2015000025 2015-01-27
	그루빠가 기계 갖고 다니면서 검열, 임의 시각에 가만히 (집에) 들어와 녹화기 안의 알이나 가택 내부를 수색함.	NKHR2015000024 2015-01-27
2018년	가끔씩 한국 드라마 등의 단속을 위해 새벽 2~3시경 109그루빠에서 가택수색을 나왔음.	NKHR2023000009 2023-05-10
2019년	109상무조에서 인민반장과 함께 단속하며, 보통은 한 달에 3~4번 정도 함. 북한이탈 주민은 인민반 지원사업도 하면서 모범세대였기 때문에 1달에 한 번 정도 검열함.	NKHR202200001 2022-05-13
	상무조가 사복을 입고 길을 돌아다니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있거나 얼굴에 살이 좀 있고 짝 빼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지품 검사를 함.	NKHR202200004 2022-05-20

1) NKHR2020000029 2020-07-05.

2) NKHR2020000048 2020-11-28.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가택수사를 많이 당했고 109에서 오는데 컴퓨터를 검사하고 몇 달에 한 번씩은 옴.	NKHR2022000012 2022-06-10
	숙박검열하다가 여기저기 뒤지면서 단속함.	NKHR2022000014 2022-06-10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109상무가 매주 혹은 매달 단속을 한다고 증언함.	NKHR2022000029 2020-07-05

- 특히, 집에 컴퓨터 등 IT 기기가 있으면 가택수색의 빈도수가 더 높다는 증언이 있음.

〈표 II-3〉 가택수색 및 IT 기기 감시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9년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가택수색을 많이 당했고 109상무에서 오는데 컴퓨터를 검사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옴.	NKHR2022000012 2022-06-10

-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비사구루빠 단속 시 안전원, 당일군 이외에도 컴퓨터 능숙자가 단속원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I-4〉 IT 기기 감시 관련 기술 관료 등장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2년	비사구루빠(109상무) 단속 시 보통 안전원 1명, 당일군 1명, 컴퓨터 능숙자 1명 총 3명 정도가 함께 단속한다고 함. 단속된 여성 1명이 간부를 내세워 돈을 많이 주고 몰수된 컴퓨터도 회수했다고 함. 단속 즉시 그 자리에서 사업(돈 고이면)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함.	NKHR2013000055 2013-03-19

2. 외국·한국 방송/녹화물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처벌 수위 강화와 유포죄

- 녹화물 시청·청취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대형, 노동단련대 등 인신구속, 공개처형, 강제 추방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파악됨.
- 이는 점차 형량이 증가하는가 하면, 초기 노동단련대 정도의 처벌에 그치던 것이 점차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거나 심지어 추방당하거나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등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임.
 - 2013년에 이미 “한국 영화음악 시청 및 청취 시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 및 불순 녹화물 시청하지 말라는 김정은 방침이 있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 2013년에는 이른바 불순 녹화물이라 하여 한국 녹화물 및 음란 녹화물 시청 및 유포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음.
 - 이러한 단속 강화의 영향으로 한국 녹화물이 아닌 중국 것을 본다든지 하는 약간의 변화가 있음.

〈표 II-5〉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 관련 처벌 수위 추이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4년	녹화물 시청의 경우에도 한국 녹화물은 교화형임.	NKHR2015000024 2015-01-27
	예외적으로 중국 녹화물 중에서 혁명적인 내용이거나 무술영화는 허용함.	NKHR2015000071 2015-04-07
	작년부터 한국노래를 단속해서 현재는 교화까지 감. 그전까지는 단속이 심하지 않아서 몰래 들어놓고 들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몰래 듣는 것도 어려워짐,	NKHR2015000071 2015-12-01
2018년	벌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짐.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단속되면 교도소를 가며 형이 5년 이상임, 2018년 이후에도 같음.	NKHR202200006 2022-05-25
	2018년 이후 탈북 직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음. '닥터이방인'이라는 드라마를 본적 있음. 검열이 자주 오기 때문에 걸리면 추방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갈 수 있어서 조심해서 시청함.	NKHR2022000001 2022-05-13
2019년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2월에 방침이 떨어져서 한국 녹화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의 녹화물도 보지 못하게 하고 단속을 강화했다고 증언함. 109그루빠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단속을 했음. 또한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던 여성이 한국 녹화물을 보다가 이웃의 고자질로 불시에 109그루빠에 단속을 당해 뇌물로 20,000위안을 건넸는데도 무마되지 않고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함. 중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약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 해결되지 않고 교화소나 관리소로 보내진다고 함.	NKHR2019000076 2019-08-26
	옛날보다 단속이 엄격해짐. 한국 영화 단속은 점점 심해짐. 단속되면 엄청 때리고, 교도소에 10년 이상 있어야 함. 교도소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 추방당함. 예전에 5년형을 받았다면 지금은 10년형으로 늘어나는 식임.	NKHR2022000015 2022-06-10

- 특히, 단순 시청과 비교해 남한 및 외국 녹화물 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6〉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유포죄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3년	2013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드라마를 CD-R로 기계복사, 유통시킨 사람(50대)이 사형당했다고 특문함.	NKHR2015000133 2015-09-22
2014년	1999년도 이후 단속으로 녹화물 공급책들이 대부분 잡혀가서 이후 녹화물을 보지 못했다고 함.	NKHR2015000024 2015-01-27
	녹화물 복사 및 유포의 경우 교화형임.	NKHR2015000043 2015-02-24
2015년	시청죄보다 유포죄가 처벌이 더 무거우며, 2015년에 동창 한 명이 유포죄로 적발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청년동맹증을 반납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함.	NKHR2019000015 2019-05-07

- 이와 더불어 그중에서도 특히 음란녹화물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파악이 됨.
 - 비사그루빠의 감시는 상시로 이루어지기에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특히 음란물이 적발되면 최대 교화 10년형까지도 받는다는 증언도 있었음.³⁾
 - 한국 녹화물을 보다가 단속되면 처벌의 강도는 보통 무기징역 또는 교화이고 성 녹화물을 보다가 적발되면 총살까지도 한다고 함.⁴⁾
 - 녹화물 단속은 주로 109그루빠에서 하는데 단속 강도도 세고 처벌도 강함. 보안서에서는 녹화물 단속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잡아넣기도 하는데, 처벌 강도는 보통 무기징역 또는 교화이고 성 녹화물을 보다가 적발되면 총살까지도 한다고 함.⁵⁾

■ 한국방송 및 녹화물에 대한 처벌 수위

-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처벌은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정도의 노동교화형에서 8~10년으로 강화되었다는 증언들도 다수 수집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시간당으로 시청한 편수를 계산하여 수위가 결정된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 한국 드라마 시청 등 한국과 연계된 것은 무조건 관리소에 보내지는 사유가 된다고 증언함.⁶⁾
 -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지인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적발되어 보위부에서 3~4달 정도 조사를 받고 후에 교화 3년형을 받고 수감되었음을 들었다고 증언함. 109그루빠는 전파를 탐지하는 기계를 들고 다니며 그 기계로 전파를 탐지하면 화면에 어떤 영상물을 봤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걸리면 꼼짝없이 단속된다고 함.⁷⁾

〈표 II-7〉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9년	단속하다 걸리면 단련대임. 2019년도부터 엄격해졌으며, 한국 영화를 시간당으로 1시간에 교화 1년임. 한국영화 7시간 봤다고 교화 7년간 사람이 있음.	NKHR2022000002 2022-05-18

- 이를 통해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는 배경에 대해 북한 당국의 인식을 추정해볼 수 있음.
- 따라서 한국 녹화물에 대한 시청은 다른 외국 녹화물에 대해 처벌이 강하며 뇌물을 제공해도 무마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있음.
 - 한 북한이탈주민은 2년 전부터 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해졌으며,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단속될 경우 돈을 아무리 쥐도 풀려날 수 없고 교화소에 가야 한다고 증언함.⁸⁾

3) NKHR2019000016 2019-05-07.
4) NKHR2019000084 2019-10-05.
5) NKHR2019000084 2019-10-05.
6) NKHR2019000012 2019-11-18.
7) NKHR2019000089 2019-10-19.
8) NKHR2019000097 2019-10-21.

- 양강도 헤산시에 거주하던 여성은 한국 녹화물을 보다가 이웃의 고자질로 불시에 109그루빠에 단속을 당해 뇌물로 20,000위안을 건넸는데도 무마되지 못하고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함. 즉, 중국 영화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뇌물로도 해결되지 않고 교화소나 관리소로 보내진다고 함.⁹⁾
 -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다 단속될 경우 무조건 추방이라는 증언이 수집되었음. 해당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에 학생 8명이 한국 음란물을 보다가 단속되어 추방당했다고 증언함.¹⁰⁾
 - 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녹화물 등을 단속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한국 녹화물을 보다가 적발될 경우 교화 10년형을 선고 받는다고 증언함.¹¹⁾
- 더욱이 한국 방송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은 공개재판 및 무기징역이나 심한 경우 사형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증언도 존재함.
 -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동네 이웃이었던 여자가 한국 영화를 보다가 적발되어 공개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갔다고 증언함. 재판에는 보안서 예심원들이 나와서 판결을 했음.¹²⁾
 - 2017년 5월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2월 한국 CD-ROM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4명이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함.¹³⁾
 - 2017년 7월 양강도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또한 2013년도 양강도 헤산시에서 ‘한국방송물 시청 및 퇴폐행위’ 죄목으로 3명이 공개처형을 당한 것을 득문했다고 증언함.¹⁴⁾
 - 한 북한이탈주민은 2년 전부터 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해졌으며,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단속될 경우 돈을 아무리 쥐도 풀려날 수 없고 교화소에 가야 한다고 증언함.¹⁵⁾

■ 공개폭로 모임

- 한편, 불법녹화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개폭로모임’ 등 공개적인 비판 방식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I-8〉 공개폭로 모임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4년	1년에 3~4회씩 공개폭로모임 실시함. 주된 이유는 녹화물 시청이며, 목적은 사람들(학생 등)에게 폭로하기 위함임(처벌 목적이 아님).	NKHR2015000043 2015-02-24
2019년	공개재판이 아닌 공개폭로모임이라는 것을 통해 판검사가 아닌 보안원이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하여 단련대로 보내졌다고 증언함.	NKHR2019000015 2019-05-07

9) NKHR2019000076 2019-08-26.
 10) NKHR2019000003 2019-04-08.
 11) NKHR2019000065 2019-08-17.
 12) NKHR2019000104 2019-11-09.
 13) NKHR2017000073 2017-08-28.
 14) NKHR2017000094 2017-10-23.
 15) NKHR2019000097 2019-10-21.

3. 뇌물과 처벌의 면제 및 감형

■ 주민의 정보접근 욕망을 근절하기 어려운 요인

- 북한은 인맥이 없으면 뇌물을 통해 면제받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으로 파악이 되며, 이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욕망을 북한 당국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요인이 됨.
 - 2017~2018년경 중국 영화로 단속을 당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맥과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했다고 증언함. 중국 영화라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음.¹⁶⁾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녹화물 단속에 대한 처벌 여부는 현장에서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증언함. 교화에 갈 사안도 며칠이나 몇 달만에 풀려나오기도 함. 돈이 많은 집은 걸려도 그만큼의 돈을 내면 문제가 없고, 모두 돈으로 무마할 수 있음.¹⁷⁾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이색적인 노래가 있을 경우 100달러를 내고 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함.¹⁸⁾

〈표 II-9〉 외국 녹화물 단속과 관료들의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5년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맥이 없으면 뇌물을 많이 줘야 한다고 답함.	NKHR2022000018-2 2023-08-01

- 특히 한국 녹화물 시청이 마약을 하다 걸린 죄보다 더 무겁다는 증언이 있음.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영화를 보는 것이 빙두를 하다가 단속된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증언함. 교화형, 강제추방,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을 받게 됨.¹⁹⁾
- 이는 바꿔 말하면, 한국 녹화물을 시청하다가 걸리면 다른 외국 녹화물보다 처벌이 대단히 강한 만큼 뇌물의 액수 또한 고액임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적지 않음.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노래 중 금지된 것을 듣다가 단속을 당하면 단련대 정도의 처벌을 받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았을 경우 처벌이 대단히 무겁다고 증언함.²⁰⁾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한국 녹화물은 교화형을, 중국 녹화물은 단련대를 간다고 증언함.²¹⁾
 -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지인이 한국영화를 보다가 녹화물 가택수색에 단속되었다고 증언함. 6개월 정도 보위부에 들어갔으며, 돈을 많이 주고 단련대에 가는 것을 면했음.²²⁾

16) NKHR2020000005 2020-05-15.
 17) NKHR2020000014 2020-06-15.
 18) NKHR2020000048 2020-11-28.
 19) NKHR2020000021 2020-07-06.
 20) NKHR2020000026 2020-07-06.
 21) NKHR2020000029 2020-07-06.
 22) NKHR2020000022 2020-07-06.

- 한국 영화일 경우 뇌물로 1,000위안을 내야하고, 한국 드라마 25부작, 영화 5개가 걸린 사람은 30,000위안을 바쳤다고 특문함.²³⁾
-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대략 2,000달러를 고여야 하며, 자칫하면 노동교화소에 가게 되므로 많이 고여야 함.²⁴⁾
- 2019년에 남편의 사촌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되어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고 증언함. 단련대에 갈 뻔했지만, 뇌물을 10,000위안 정도 주고 법적 처벌과 퇴학을 면했음.²⁵⁾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청년동맹에서 길 가던 사람들의 손전화 단속을 하는데,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1편에 10,000위안 정도를 줘야 무마할 수 있다고 증언함.²⁶⁾

〈표 II-10〉 한국 녹화물에 관한 처벌 및 관료들의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7년	2017~2018년경 중국 영화로 단속을 당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맥과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했다고 증언함. 중국 영화였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음. 한국 영화일 경우 뇌물로 1,000위안을 내야 하고, 돈을 많이 내도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한국 드라마 25부작, 영화 5개가 걸린 사람은 30,000위안을 바쳤다고 특문함. 단속에 걸린 현장에서 바로 뇌물을 주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무마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 뒷선에 보고된 이후에는 뇌물을 고일 대상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짐.	NKHR2020000005 2020-05-15
2018년	2018년 지인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녹화물 가택수색에 단속되었다고 증언함. 6개월 정도 보위부에 들어갔으며, 돈을 많이 주고 단련대에 가는 것을 면했음.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대략 2,000달러를 고여야 하며, 자칫하면 노동교화소에 가게 되므로 많이 고여야 함.	NKHR2020000022 2020-07-06
2019년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에 남편의 사촌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단속되어 자신의 집으로 도주해 왔다고 증언함. 드라마를 100회 가까이 보았고, 최근 드라마였음. 증언자도 친척을 보호해줬다고 해서 단련대에 갈 뻔함. 친척은 심문은 받았지만 뇌물을 10,000위안 정도 고이고 법적 처벌과 퇴학을 면했음. 돈이 없으면 무조건 교화소를 가는데, 시동생이 무마되어서 증언자 가족도 처벌을 면함.	NKHR2020000030 2020-08-03

- 따라서 뇌물을 고이더라도 직위를 잃는 사례가 조사되었음.

〈표 II-11〉 한국 녹화물 시청 후 직위 해제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0년	2010년 여름 28세 남성이 한국 녹화물을 봤다는 이유로 노동단련대 6개월을 받았으나 뇌물을 고여 실제로 1개월만 노동단련대에서 생활함. 피해자의 아버지는 국토부기장이었고, 어머니는 호텔부기장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남.	NKHR2013000140 2013-07-23

23) NKHR2020000005 2020-05-15.

24) NKHR2020000022 2020-07-06.

25) NKHR2020000030 2020-08-03

26) NKHR2020000013 2020-06-15.

■ 소외계층

- 따라서 주민의 정보접근을 통제하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뇌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의심의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최근에는 아예 뇌물이 정액으로 정해졌다는 증언도 더불어 존재함.

〈표 II-12〉 뇌물 정액제 행태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8년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0월에 가택수색을 경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순녹화물 (인도 영화, 중국 영화)로 적발되었으나 북한돈 20,000원으로 무마했음. 보안원이 뇌물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적발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NKHR2019000045 2019-07-01
2019년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녹화물 단속에 대한 처벌 여부는 현장에서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증언함. 교화에 갈 사안도 며칠이나 몇 달 만에 풀려나오기도 함. 돈이 많은 집은 걸려도 그만큼의 돈을 내면 문제가 없고, 모두 돈으로 무마할 수 있음.	NKHR2020000014 2020-06-15
	돈이나 백이 없으면 공개재판을 받고 학교 학생들 모인 곳에서 비판받음.	NKHR2023000010 2023-05-15

〈표 II-13〉 뇌물을 바치지 못하여 처벌되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9년	단속되면 처벌은 영화 한 편에 인민비 얼마라고 정해져 있으며, 돈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고 없으면 감방에 감.	NKHR2022000010 2022-06-09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일상 단속에서 교화소까지 가는 경우는 없음.	NKHR2023000015 2023-07-27
	요구하는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루빠에서 데려가고, 나중에는 소년교화소로 보냄. 일반 학생들은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데, 증언자의 아들처럼 1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함. 부모들이 자녀를 매장시키지 않으려고 돈을 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임. 위반자의 가정 형편을 보면서 돈을 요구함. 증언자는 처음에 1,000위안을 요구받았는데,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500위안으로 무마를 했음.	NKHR2023000019 2023-08-02

- 문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범죄자로 내모는 주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금전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자살로 내몰거나 탈북을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는 증언도 있음.

〈표 II-14〉 자살과 탈북으로 몰리는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6년	2016년도에 증언자의 사촌언니가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에 걸림. 주모자는 뇌물을 주고 단련대 6개월형을 받았고 다른 애들은 돈이 없어 교화 2년형을 받음.	NKHR2018000102 2018-10-01
2018년	2018년에 형사법이 바뀌어서 한국 드라마나 녹화물 USB를 보면 5년형이라는 증언이 있었음. 해당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4월에 단속되어 자살한 모자를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단속되었고,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할 형편이 되지 못해 어머니와 자살한 것이라고 증언함.	NHHR2019000025 2019-05-18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9년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1월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어 보안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함.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면 교화 10년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고 함경북도 도병원 49호에 입원해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도망쳐 나와서 한국으로 왔음. ²⁷⁾	NKHR2019000084 2019-10-05

4.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 세대 통제

- 당국의 청년들에 대한 정보접근 단속이 더욱 빈번해지는 양상이 부각이 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퇴학에서 비판 무대에 세우거나 단련대, 심하면 교도소에도 보내고 있다는 증언이 많아짐.

〈표 II-15〉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청소년 처벌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2년	2012년경에는 미국 녹화물을 시청하다 단속되어 공개재판을 받은 사람이 유기교화형 5년형을 받음.	NKHR2017000008 2017-04-10
	평양직할시 리과대학에서 한국 드라마를 USB를 통해 노트북으로 시청하다 발각되어 2명은 퇴학, 다른 2명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증언함.	NKHR2017000090 2017-09-25
2014년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순녹화물이 유행을 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자리를 비우면 청년 동맹 간부들이 가방을 뒤져 불순녹화물을 단속하는 경우도 많음.	NKHR2015000037 2015-02-10
2016년	처벌이 심각하긴 하나, 돈을 주면 빼내는 경우도 많이 있음. 청소년같은 경우 사람들 모아놓고 비판 무대를 하거나 심각하면 교도소에 보냄. 고등중학교 졸업한 해인 2016년도 까지 목격함.	NKHR2022000025 2022-06-23
	2016년도에 중학교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노래들으며 춤도 추고 그러다 적발 돼서 보위부에서 매 맞고 부모가 사업해서 교화갈 거를 단련형 1개월을 받고 나왔다고 들었음.	NKHR2018000076 2018-07-30
	청소년 같은 경우,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판 무대를 하거나 심각하면 교도소에 보냄. 고등학교 졸업한 해인 2016년에 목격함	NKHR2022000025 2022-06-23
2018년	단속은 심하나, 교화를 몇 년까지 가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으며 보통 1~2년임. 한국 노래를 듣고 단련형 6개월 간 애가 있었는데, 그나마 부모가 뇌물을 줘서 단련형 6개월만 받음. 부모가 사업을 해서 형을 줄인 것임.	NKHR2022000007 2022-05-25
2019년	단속은 엄청 심함. 109그루빠들이 단속하며, 젊은 세대들이 활발하게 보기 때문에 집에 이따금 막 들어오거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애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도 함. 단속되면 처벌은 영화 한 편에 인민비 얼마라고 정해져 있으며, 돈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감방에 감. 처벌수위는 정확하게 모르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들음.	NKHR2022000010 2022-06-09

- 특히, 다음 증언과 같이 미성년자도 감시의 대상이 되며 직접적인 처벌 또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언이 확보됨.

27) 북한에서는 정신병원을 49호병원이라고 하고, 정신질환자를 49호환자로 부른다고 함.

〈표 II-16〉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미성년자 처벌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7년	한편 단련대 처벌로 끝나지 않고 교화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음. 한 증언자의 이웃은 한국 녹화물 씨디알을 대량 생산 및 판매하여 교화형 3년을 받았음.	NKHR2018000060 2018-07-02
	증언자의 사촌 언니는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걸렸는데 미성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4명이 교화 2년을 갔음. 그러나 그중에 주모자인 학생은 부모가 돈을 고여 단련대 6개월 형에 그침.	NKHR2018000102 2018-10-01

- 무엇보다 북한에서는, 시청보다는 이러한 녹화물을 유포한 ‘유포죄’의 처벌이 더 무거운데, 젊은 세대의 경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보유하거나 다루는데 기성 세대보다 더 익숙하여 자연적으로 친구들과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무거운 형량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증언이 적지 않음.
 - 한 북한이탈주민은 시청죄보다 유포죄가 처벌이 더 무거우며, 2015년에 동창 한 명이 유포죄로 적발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청년동맹증을 반납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증언함. 또한 공개재판이 아닌 공개폭로모임이라는 것을 통해 판검사가 아닌 보안원이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하여 단련대로 보내졌다고 증언함.²⁸⁾

〈표 II-17〉 한국 및 외국 녹화물 유포죄 처벌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8년	2018년도에 딸이 친구들에게 USB를 빌려줬는데 109상무에게 검열당해 잡혀감. 딸이 잡혀가서 너무 많이 맞아서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도망침.	NKHR2022000019 2022-06-16
2019년	대학생들이 걸리면 다른 아이 유포시켜 연쇄적으로 걸리기도 함.	NKHR2022000014 2022-06-10
	단속되면 무조건 추방임. 숙박검열하다가 여기저기 뒤지면서 단속하고, 대학생들이 걸리면 다른 아이 유포시켜 연쇄적으로 걸리기도 함.	NKHR2022000014 2022-06-10
	2019년도에도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태양의 후예, 변호인 등을 봤음. 혼자 봤는데 같이 보는 애들은 꼭 걸림. 노트북이 있어서 USB 옮길 때 옮겨주면서 카피해놓음.	NKHR2022000018 2022-06-15

- 따라서 유포죄가 적용될 경우, 가족들이나 친구들까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젊은 세대는 이러한 엄격한 환경과 처벌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고 있음.

28) NKHR2019000015 2019-05-07.

〈표 II-18〉 자살로 내몰리게 하는 청소년 처벌 실태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9년	한국 영화를 보면 교도소를 보내기 때문에 간혹 자살하는 애들도 있음. 2016년경 한국 영화를 보면 같이 본 친구들을 모두 불러야 하니 혼자 가겠다고 마약 한 병 마시고 죽은 애도 있음.	NKHR2022000015 2022-06-10
	옛날보다 단속이 엄격해짐. 한국 영화 단속은 점점 심해짐. 단속되면 엄청 때리고, 교도소에 10년 이상 있어야 함. 교도소에 가는게 끝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 추방당함. 예전에 5년형을 받았다면 지금은 10년형으로 늘어나는 식임. 보안서에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보위부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고 함.	
	2017년 12월에 구류장에 같이 있던 사람의 딸이 한국 드라마인 줄 모르고 친구랑 같이 봤는데 친구 중 한 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것이 들켜 딸도 같이 잡혔음. 그 딸은 구류장에서 심문을 받다가 죽었다고 들음.	NKHR2022000017 2022-06-13

- 특히 이러한 사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이후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사형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서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는 증언이 있음.

〈표 II-19〉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정보접근권 침해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21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서 단속을 당해도 계속 봤음. 2021년 탈북 직전에 친구 3명이 한국 드라마 보다가 단속되어 예심 받는 중이었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인민반마다 다 보급해서 집이나 문에 다 붙이라고 했는데 법이라서 무서웠음. 법에 사형, 총살이 나오니깐 무서워서 안보게 됨. 돈 내고 나오게 예전보다 어려워짐.	NKHR2022000030-2 2023-05-04
2023년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로 한국 영상물을 보면 공개처형하는 것이 늘었음.	NKHR2023000055 2023-07-22

- 이와 더불어 공개폭로모임이 2014년 전후로 설치되었다는 증언은 청년들에 대한 당국의 정보접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임.

〈표 II-20〉 청년 세대와 공개폭로모임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4년	1년에 3~4회씩 공개폭로모임 실시함. 주된 이유는 녹화물(시청 등)이었음. 주로 단련대 처벌을 받으나, 대부분 뇌물로 면제됨. 목적은 사람들(학생 등)에게 폭로하기 위함임 (처벌 목적이 아님).	NKHR2015000043 2015-02-24

III 손전화

1. 검열과 단속 영역의 확대

■ 중국 손전화에서 국내 손전화로

-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휴대전화와 비공식적인 중국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았던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단속은 중국 휴대전화에 집중되어 있었음.
 -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휴대전화가 주로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과의 연락, 도강 및 송금 중개, 밀수·밀매, 인신매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표 III-1〉 북한 주민의 중국 휴대전화 소지 처벌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08년	평안남도 덕천시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이 한국으로 탈북한 삼촌과 신의주에서 통화 하였으나 이 통화 내용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도청당해 무산보위부에 체포, 노동 단련대 6개월에 처해짐. 구류장에 10달 동안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노동 단련대에 구금되지는 않음.	NKHR2013000098 2013-05-14
2010년	2010년 5월, 27세 남성이 한국과 통화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노동단련대 6개월(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처해짐.	NKHR2013000048 2013-03-05
2011년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는 1973년생 여성이 중국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는데 단속, 체포됨. 피해자는 당시 요시찰 대상으로 이전에도 몇 번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이 날 사건 이후 행방을 듣지 못함. 증언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한국 기자와 연락을 했었다고 함. 피해자가 구금된 뒤 뇌물로 바칠 돈을 구하기 위해 증언자가 한국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1,500위안을 보내줌.	NKHR2013000057 2013-03-19
2012년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중국 휴대전화를 군대에서 200위안을 주고 구입함. 가택수색을 나온 보위지도원에게 단속되자 북한돈 500원을 뇌물로 고이고 연풍보안서 담당 보안원이 연풍분주소에서 취급하려 하자 또 북한돈 1,000원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2000269 2012-12-11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2011년 11월 한국 사람과 통화시켜줌. 2012년 3월 보위부가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가지고 옴. 혐의를 부인하다가 녹음 내용을 듣고 시인하고 3,500위안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073 2013-04-16
2018년	2018년에 중국 전화로 전화를 사용하다가 친구 집에서 갑자기 단속을 당함. 유심칩은 씹어버리고 뇌물을 주고 처벌은 받지 않음. 가택수색을 당했지만 영장도 없었으며, 전파를 잡는 거라서 무조건 집에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임.	NKHR2021000011-2 2022-05-31

- 그러나 2008년 전후 국내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북한 휴대전화 내장 데이터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증언으로 확산됨.

〈표 III-2〉 국내 휴대전화 단속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2년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34세 교원이 비사그루빠 109상무의 단속 시 휴대전화 내장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노래 및 금지곡이 검열됨. 뇌물로 6,000위안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118 2013-06-25
2014년	북한 손전화도 단속함. 내장 파일이나 체계 등 단속하여 불순한 것이 있는지 검열함. 이러한 검열은 매우 자주 있으며, 단속 시 보안서에서 취급함.	NKHR2014000037 2014-04-15

- 단속의 항목은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메모리 등이며, 한국 노래나 드라마와 같은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자 등에 남한 말투 사용에 대한 단속이 주요 대상임.
 - 노래, 문자메시지의 남한 말투, 영화 등이며, 북한 노래, 영화라도 탈북한 연예인이 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함. 노랫말이 들어가면 남한 노래인지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남한 반주만 가지고 다님.²⁹⁾

〈표 III-3〉 휴대전화 관련 당국의 단속 항목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7년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09그루빠의 손전화 단속에 걸렸는데, 부정적인 노래 등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열했다고 증언함. 단속에 걸리면 48상무조로 보내져 조사를 받게 됨.	NKHR2019000003 2019-04-08
2019년	손전화 단속도 많이 함.	NKHR2023000008 2023-04-28
	보안원들이 손전화로 노래를 듣는 사람을 불시 단속하여, 한국노래가 나오면 단련대를 가거나 뇌물을 고여야 함.	NKHR2023000012 2023-05-30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 시청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북한돈 500만원을 주고 처벌을 무마한 적이 있음. 돈이 없다면 부모라도 처벌받게 되어있음.	NKHR2023000018 2023-08-01
	보안원들이 손전화로 노래를 듣는 사람을 불시 단속하여, 한국 노래가 나오면 단련대를 가거나 뇌물을 고여야 함.	NKHR2023000012 2023-05-30
	2019년 즈음 길주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듣는 청소년층 애들을 단속했었음.	NKHR2023000018 2023-08-01

- 특히 최근에는 북한 주민의 남한말투 사용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증가 및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 증언들이 부각됨.

〈표 III-4〉 북한 주민의 남한 말투 사용에 관한 단속 증가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4년	북한 손전화도 단속함. 주로 문자를 단속하는데, 문자의 '아빠'. '자기야' 등과 같이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단속되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학생의 경우 퇴학을 당하기도 함. 보위부원이 단속함.	NKHR2015000137 2015-09-22

29) NKHR2020000030 2020-08-03.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5년	청년동맹이 길, 기차 등에서 손전화를 단속함. 메시지 내용 등을 보고 한국 말투를 사용했다고 하면 109상무에게 손전화를 넘김.	NKHR2015000162 2015-12-01
2018년	한국말, 외래어, 이모티콘 등이 단속 대상임.	NKHR2019000068 2019-08-26
2019년	휴대전화는 수시로 검열함. 문자를 보자해서 '오'자가 들어가면 한국말투라고 시비를 걸고 단속함. 특히 비디오나 이미지는 있으면 안 됨.	NKHR2022000011 2022-06-10

2. 검열 방식의 고도화와 기술적 진화

■ 중국 휴대전화

-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의 손전화를 활용하여 중국 및 한국과 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당국의 통제 방식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혜산시와 회령시에서의 단속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양강도 혜산시에 손전화 통제를 위한 '전자장벽'이 설치되었고 중국의 전파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함. '전자장벽'은 김정일이 시작했는데, 북한에서는 '방패'라고 부른다고 함.
 - 2011년 12월부터 중국 전화사용에 대한 전파 방해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전파탐지국 15국이 평양에서 왔으며 독일 전파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며 조사를 한다고 증언함.³⁰⁾

〈표 III-5〉 북한 주민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당국의 기술적 방해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0년	2010년 이후 '장애파' 때문에 손전화 사용이 어려움.	NKHR2014000001 2014-02-18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손전화 사용 방해를 위해 당국에서 장애파를 설치했었는데 집에서 손전화를 사용하던 도중 단속에 걸렸으나 보위지도원에게 뇌물로 중국돈 1,500위안을 내고 처벌을 피함. 손전화는 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몰수당하지 않음.	NKHR2012000204 2012-10-09
2012년	중국 대방 화교를 통해 손전화기 값을 보내면 조선에서 전화기를 찾을 수 있음. 손전화 단속은 보위부 12국에서 전파탐지기로 하며, 처벌 역시 국가보위부 관할임.	NKHR2014000006 2014-02-18
2019년	국경연선에서는 휴대전화가 안 되게 장애파를 놓고 있음.	NKHR2020000030 2020-08-03

- 이와 동시에 북한 당국은 전파 탐지기 등의 도청설비를 동원하여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발각이 되면 엄중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점차 증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즉, 독일제 도청기계가 도입되면서 안전부와 보위부가 높은 산에 가서 손전화를 단속하였는데, 전화 중 현장에서 붙잡히거나 혹은 통화를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많이 검거함.

30) NKHR2016000126 2016-8-9.

〈표 III-6〉 도청과 감청의 대상인 북한 주민과 처벌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08년	평안남도 덕천시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이 한국으로 탈북한 삼촌과 신의주에서 통화 하였으나 이 통화내용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도청당해 무산보위부에 체포, 노동 단련대 6개월형을 받음.	NKHR2013000098 2013-05-14
2009년	2009년 겨울 해산시 혜탄동에 사는 51세 여성이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다 전파탐지기에 걸려서 단속됨.	NKHR2013000144 2013-08-06
2013년	반담 의심자로 2009년 전화기 검사. 당시 브로커와의 통화기록을 그때그때 삭제하여 발각되지 않았음. 그러나 2011년부터는 전화카드심을 검사하는 기계가 나와서 삭제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됨. 2013년도에는 전화기판까지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함.	NKHR2015000142 2015-10-06
2014년	보위부 27국 전파탐지국에서 도청하는 등 군보위부 및 보안서 모두가 손전화 사용을 단속함. 보위부는 도청설비를 구비하여 이것으로 단속함. 보안원이 단속할 경우 뇌물이 통하는 반면, 보위부원은 뇌물이 통하지 않음.것을 안테나 세운 채 배낭에 매고 보위부 지도원이 돌아다닌다고 함.	NKHR2015000166 2014-10-07
	2014년부터 손전화 탐지기가 강화되어 무전기 같은 것을 안테나 세운 채 배낭에 매고 보위부 지도원이 돌아다닌다고 함.	NKHR2015000091 2015-05-12
2015년	1시간 이상 한국 이모와 통화하다가 당국에 도청되었는데 당비서가 보위부에서 인지 하고 있다고 시아버지에게 귀뜸해 줌. 2015년 봄 기업소에서 행사 후에 공장 보위 부장이 사람들 앞에서 한국 통화를 하지 말라고 함. 도청에 걸리면 해당 보위부에 통보 된다고 경고함.	NKHR2016000061
	2015년 6월 본인이 남편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가 보위부의 탐지기에 걸려서 도 집결소로 잡혀갔음.	NKHR2017000103 2017-10-23
2017년	국경에 전파를 탐지하는 기계가 있으며, 보위부원이 몸에 장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고 함.	NKHR2017000067 2017-08-28
2018년	9월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받다가 감시도청에 걸려 보위지도원 4명이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	NKHR2019000069 2019-08-26
2019년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에 따르면 중국과의 통화는 감청 대상이며, 보위부에서 감청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고 증언함. 감청기에 신호가 들어오면서 위치까지 알려준다고 함.	NKHR2020000028 2020-07-06

-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 직접 경험한 증언자에 따르면 국경 연선지역에서 “손전화 갖고 있는 사람은 80%가 다 보위부 스파이”라고 할 정도로 스파이 방식을 통해 단속함.

〈표 III-7〉 스파이를 동원한 북한 당국의 주민 정보 접근 통제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6년	2016년 3월 친구 전화를 2번 빌려서, 중국에 있는 처형과 2번 통화했는데, 알고보니 전화를 빌려준 친구가 보위수 스파이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연선 옆에 손전화 갖고 있는 사람은 80%가 다 보위부 스파이라고 함.	NKHR2016000164 2014-11-01

- 그러므로 도청 때문에 5분 이상 통화하기가 힘들다는 증언이 있었으며,³¹⁾ 2019년 탈북한 증언자에 따르면 단속 대상이 되는 국제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보위원들이 전화를 감청하러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숨겨놓았다가 산이나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는 등 숨어서 짧게 통화를 함.³²⁾

〈표 III-8〉 당국의 감청으로 짧은 통화만 가능한 북한 주민 실태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5년	중국 전화기 10분 정도만 통화해도 위치까지 잡히는 기계로 단속하고 있음.	NKHR2015000106 2015-05-19
2019년	도청 때문에 5분 이상 통화하기가 힘들.	NKHR2019000022 2019-05-07

〈표 III-9〉 당국의 휴대전화 감청을 피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5년	2015년 집에서 중국전화로 딸이랑 통화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구류장에 들어감. 단속에 걸린 후로 집에서 통화를 못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	NKHR2022000003 2022-05-19
2017년	전파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찾아 몰래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함.	NKHR2017000067 2017-08-28

- 그러나 북한 당국은 독일제 도청 기계를 도입하는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주민들의 대응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음.
 - 이미 지운 데이터도 복원을 해서 검사함.

〈표 III-10〉 주민 감시를 위해 첨단 장비를 갖추는 북한 당국에 관한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4년	2014년 11월에 손전화 단속을 위해 도이칠란드(독일) 기계를 도입하여 반장과 지도원 등이 몸에 넣고 다니면서 위치추적/ 도청하여 단속함.	NKHR2015000052 2015-04-07
2018년	독일제 도청기계가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음. 안전부와 보위부가 높은 산에 가서 손전화를 단속하였는데, 전화 중 현장에서 붙잡히거나 혹은 통화를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거되었음. 전화기는 무조건 몰수당함. 단속이 심해지면서 전화기가 많이 없어짐. 전화하다 검거된 경우 정치범인지 혹은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라는 보위부의 방침이 있었음. 정치범일 때는 보위부에서 다루고, 정치범이 아니면 안전부로 인계됨.	NKHR2019000033 2019-06-0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 진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예방법도 다양해지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한 당국의 통제에 대한 주민의 우회 노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31) NKHR2019000022 2019-05-07.

32) NKHR2020000026 2020-07-06.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위해 중국산 스마트폰을 썼는데, 위챗으로 채팅을 했음. 최근에는 위챗을 사용해야만 단속에 덜 잡힘.³³⁾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감청이 무서워 아들과 전화를 하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았다고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고 증언함.³⁴⁾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국제전화가 되는 전화기는 단속 대상이므로 그런 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평소에 숨겨놓음. 보위원들이 전화를 감청하러 다니기 때문에 산이나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는 등 숨어서 짧게 통화를 함.³⁵⁾

■ 국내 휴대전화

- 2008년 이후 국내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초기에는 블루투스 등을 통해 당국에서 통제하는 불법 복제 등이 성행 하면서 당국은 이를 막는 다양한 기술적 통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2014년 전후로 추정되는 증언들이 있음.

〈표 III-11〉 정보 접근 통제를 위해 휴대전화 내 북한식 프로그램 설치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3년	예전 손전화에는 파란 안테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2013년에 방침이 내려온 이후 빨간 안테나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음.	NKHR2015000003 2015-01-13
	2013년 말 '붉은별 체계'로 바꾸면서 중국 유심카드 사용 및 블루투스를 사용한 데이터 이동을 못하게 막아놨음.	NKHR2015000027 2015-01-27
2014년	2014년 6월부터 바뀐 손전화 시스템을 '선경체계'라고 함. 이는 기존의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북한 손전화를 봉사소에 가서 등록하면 체계를 바꾸는 데 1~2일 정도 소요됨.	NKHR2015000009 2015-01-13

- 이에 따라 국내 휴대전화는 비법적인 것이 이미 다 막혀서 나오는 제품을 썼으므로 중국 휴대전화에 비해 따로 단속이 없었다는 증언도 수집됨.³⁶⁾
 - 중국에서 생산한 기기를 북한이 수입하여 북한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체계를 바꿔 재판매한다는 증언도 있음.³⁷⁾

〈표 III-12〉 북한식 체계 도입 후 손전화에 대한 단속 강도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8년	손전화 단속 처벌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음.	NKHR2022000006 2022-05-25
	북한 손전화는 단속당할 일이 잘 없음.	NKHR2021000011-2 2022-05-31

33) NKHR2020000013 2020-06-15.

34) NKHR2020000024 2020-07-06.

35) NKHR2020000026 2020-07-06.

36) NKHR2020000044 2020-10-31.

37) NKHR2020000048 2020-11-28.

- 특히 국내 휴대전화는 당국에 등록이 되어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당국이 휴대전화를 좋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III-13〉 휴대전화의 국가 등록과 감시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8년	북한에서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모두 보위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비밀 얘기는 전화로 절대 안 함.	NKHR2022000006 2022-05-25

3. 처벌 수위 및 강화

■ 중국 전화

- 중국 손전화의 소지 및 통화에 대해서는 당국이 특히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일반적으로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대 등의 처벌이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행은 처벌이 엄격함.

〈표 III-14〉 중국 전화기에 대한 엄격히 통제 사유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0년	함경북도 연사군에 거주하는 21세 여성이 2010년 12월 손전화를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음(통화내용 도청). 당시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여 용서받음. 그러나 1달 이상 집중 감시를 받았다고 함. 또한 한국에 가겠다고 할 경우 무조건 잡아가지만, 남한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통화하는 것은 괜찮으며, 단지 감시만 받는다고 함.	NKHR2013000001 2013-01-08
2013년	2013년 본인 손전화를 빌려간 사람이 중국에 나간 엄마와 연락하다 단속되어 보위부 취급되어 노동단련대 6개월 처벌받음. 처벌 피하려면 보위부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사업(뇌물)을 고여야하는데 중국 연락의 경우 3,000위안, 한국 연락의 경우 10,000 위안임.	NKHR2018000028 2018-05-08
2014년	예전에는 보위지도원들에게 뇌물 고이면 되었는데, 법 규정이 강화되어 2014년에는 사용자체로 반역자로 몰림. 특히 중국보다 한국 통화는 처벌 강도가 심하다고 함. 구금소에서 10일 정도 취조 받고 평양 구류장으로 옮겨짐.	NKHR2018000135 2018-11-19
	2014년도에 손전화 사용자가 많아지니 그루빠가 형성되어 평양사람들이 혜산에 내려와서 1년간 장기적으로 단속하였음(단속강화). 탐지기가 다니면서 전파를 잡았고 예전에는 보위지도원들에게 뇌물을 주면 되었는데, 법 규정이 강화되어 2014년에는 사용 자체로 반역자로 몰림. 특히 중국과의 통화보다 한국과의 통화가 처벌 강도가 심하다고 함. 구금소에서 10일 정도 취조받은 후 평양 구류장으로 옮겨짐.	NKHR2018000135 2018-11-19
2019년	3년 전쯤에 새 법이 나와, 중국에 있는 사람과 한 번 통화하다 적발되면 단련형 1년, 한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다가 걸리면 한 번일 때는 교화 5년, 두 번 이상일 때는 교화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증언함.	NKHR2019000116 2019-11-30

-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혹은 한국과 통화를 하였다면 정치범이라는 중범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일부 증언들이 조사됨.

〈표 III-15〉 중국 전화기를 활용한 한국 통화 처벌 수위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9년	한국으로 전화하는 것은 최근 교화소가 아니라 관리소 같은 곳에 정치범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함. 증언자 남자친구의 이웃이 한국 전화를 하다가 관리소에 가고 가족들은 추방되었는데, 관리소에 간 사람은 단순히 한국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함.	NKHR2019000043 2019-07-01
	전화사용으로 인해 정치범이 되는 경우도 있음.	NKHR2020000010 2020-05-16

- 다만 단속에 걸렸어도 전화 통화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밀수의 경우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조사됨.
 - 해외 가족 찾기 목적일 경우 교화소행이며, 밀수 목적일 경우 노동단련대로 보낸다는 증언이 수집됨.³⁸⁾
 - 한국 기도와 관련된 통화는 뇌물을 주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중국에 밀수를 하기 위한 통화는 뇌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다수 수집되고 있음.

〈표 III-16〉 중국 전화기를 통한 밀수 및 처벌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3년	2013년 4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어머니 휴대전화로 중국 대방과 연락하여 밀수하는 데 사용하다가 109그룹에게 가택수색을 당해 단속당함. 4일간 상무소에서 조사받았으며, 조사내용은 전화 출처 및 메모리 카드, 한국 노래 들은 적 있는지, 한국 영화 본 적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받았으며, 처벌은 단순 구류였음.	NKHR2016000040 2016-04-05
2014년	2014년 국경연선에서 단속을 당했는데 우리는 밀수를 하는 사람이니 사정을 봐달라고 이해를 구함. 남한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강 넘어갈 수 있음.	NKHR2017000067 2017-08-28

4. 치솟는 뇌물 비용과 격차

■ 뇌물과 처벌의 면제 및 강화

- 이와 같이 손전화를 사용하면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노동단련대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목할 점은 단속과 처벌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임.
 - 즉, 처벌 결과에 유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실제로 북한 내에서 이러한 처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이는 조사대상자 중 손전화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제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단속되었다는 증언은 많았으나 면접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뇌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38) NKHR2016000074 2016-05-17.

- 최근에는 단속원이 뇌물을 직접 요구한다는 사례도 파악됨.
- 뇌물 액수는 손전화 사용 용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북한 내에서 뇌물을 주고 처벌을 받지 않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손전화로 적발될 경우 북한돈, 중국 위안화 등을 뇌물로 주고 있음.
- 지역별, 시기별, 피해자별로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북한돈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주고 있음.

〈표 III-17〉 손전화기 단속과 뇌물 수수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08년	평안남도 덕천시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이 한국으로 탈북한 삼촌과 신의주에서 통화 하였으나 이 통화내용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도청당해 무산보위부에 체포, 노동 단련대 6개월에 처해짐. 구류장에 10달 동안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노동 단련대에 구금되지는 않음.	NKHR2013000098 2013-05-14
2009년	2009년 겨울 해산시 해탄동에 사는 51세 여성이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파탐지기에 걸려서 단속됨. 뇌물로 현금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	NKHR2013000144 2013-08-06
2010년	2010년 5월 27세 남성이 한국과 통화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노동단련대 6개월(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처해짐. 그러나 뇌물로 북한돈 30만원을 고이고 3개월 만에 퇴소함	NKHR2013000048 2013-03-05
	함경북도 연사군에 거주하는 21세 여성이 2010년 12월 손전화를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음(통화내용 도청). 당시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여 용서 받음. 그러나 한 달 이상 집중 감시를 받았다고 함.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가겠다고 할 경우 무조건 잡아가지만 남한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통화하는 것은 괜찮다고 함. 단지 감시만 받는다고 함.	NKHR2013000001 2013-01-08
	2010년 3월에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이 손전화 단속에 걸렸으나 뇌물을 고여 처벌을 면함. 중국 손전화를 자수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여 보위지도원들이 단속 왔을 때 손전화를 바침. 비판서를 쓰고 쌀 25kg, 타곡물 5kg과 150위안을 바침. 보위 지도원이 담배 등 사업용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뇌물을 요구하여 다시 뇌물을 고임.	NKHR2013000260 2012-08-10
	2010년 12월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하는 43세 여성(양강도 방역소 경리원)이 인민 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손전화 단속에 걸렸으나 뇌물로 300위안 정도를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071 2013-04-05
2011년	증언자의 고모가 손전화 사용으로 노동단련대 6개월에 처해졌으나 단련대장에게 칼라 TV를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187 2013-10-17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는 1973년생 여성이 중국 휴대전화 구매하여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는데 단속, 체포됨. 피해자는 당시 요시찰 대상으로 이전에도 몇 번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이 날 사건 이후 행방을 듣지 못함. 증언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한국 기자와 연락을 했었다고 함. 피해자가 구금된 뒤 뇌물로 바칠 돈을 구하기 위해 증언자가 한국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1,500위안을 보내줌.	NKHR2013000057 2013-03-19
2012년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던 26세 여성이 중국 손전화로 한국과 연락하여 국가안전 보위부에서 단속했으나 뇌물로 200달러를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2000285 2012-12-18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하는 34세 교원이 비사그루빠 109상무의 단속 시 휴대전화 내장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노래 및 금지곡이 검열됨. 뇌물로 6,000위안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118 2013-06-25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2011년 11월 한국 사람과 통화 시켜줌. 2012년 3월 보위부가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가지고 옴. 혐의를 부인하다가 녹음 내용을 듣고 시인하고 3,500위안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073 2013-04-16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중국 휴대전화를 군대에서 200위안을 주고 구입함. 가택수색을 나온 보위지도원에게 단속되자 북한돈 5백 원을 뇌물로 고이고 연풍보안서 담당 보안원이 연풍분주소에서 취급하려 하자 또 북한돈 천원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2000269 2012-12-11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손전화 소지로 단속되었으나 뇌물로 현금을 고이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048 2013-03-05
	2012년 2월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이 단속되었으나 뇌물로 2,000 위안을 주고 처벌을 면함.	NKHR2012000273 2012-09-16
	2012년 9월 함경북도 무산군 27세 남성(번역원, 화교)이 인민보안부에 단속되었으나 뇌물로 처벌을 면제받음.	NKHR2013000135 2013-07-23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손전화를 사용한 여성이 단속되자 뇌물로 5,000위안을 주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026 2013-02-05
	함경북도 연사군에 거주하던 44세 여성이 손전화 단속 시 뇌물을 요구받았으며,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함.	NKHR2013000061 2013-04-02
2019년	처음 걸리면 뇌물을 정말 많이 써야 하며, 휴대전화가 단속되면 고문을 엄청 당하고, 구타도 당함.	NKHR2022000018-2 2023-08-01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북한돈 500만원을 주고 처벌을 무마한 적이 있음.	NKHR2023000018 2023-08-01
	2019년 길주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단속에 걸리면 교도소나 단련대로 갔음. 심하면 교도소행이지만 북한돈 1,000만원(1,200달러)정도 지불하면 면할 수 있었음.	NKHR2023000018 2023-08-01
	109상무가 수시로 단속하며, 이들에게 걸리면 노동단련대, 심하면 교화소에 감. 처벌 수위는 돈을 얼마 주는지에 따라 다름.	NKHR2022000001 2022-05-13

■ 뇌물이 통하지 않는 남한 죄

- 단속에 걸렸을 경우, 전화 통화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한국 기도 등 한국과 관련된 통화에 대해서는 뇌물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
 - 해외 가족찾기 목적일 경우 교화소행이며, 밀수 목적일 경우 노동단련대로 보낸다는 증언이 수집됨.³⁹⁾
 - 중국에 밀수를 하기 위한 통화는 뇌물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다수 수집되고 있으나, 한국 기도와 관련된 통화는 뇌물을 주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증언들도 수집됨.

39) NKHR2016000074 2016-05-17.

〈표 III-18〉 뇌물이 통하지 않는 남한 죄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4년	2014년도에 손전화 사용자들이 많아지니 그루빠가 형성되어 평양사람들이 혜산에 내려와서 1년간 장기적으로 단속하였음(단속강화). 탐지기가 다니면서 전파를 잡았고 예전에는 보위지도원들에게 뇌물 주면 되었는데, 법 규정이 강화되어 2014년에는 사용하는 것 자체로 반역자로 몰림. 특히 중국보다 한국 통화는 처벌 강도가 심하다고 함. 구금소에서 10일 정도 취조받고 평양 구류장으로 옮겨짐.	NKHR2018000135 2018-11-19

- 따라서 이는 탈북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언도 있음.

〈표 III-19〉 남한 연루 손전화기 사용과 정치범으로 처벌되는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7년	북한에 있는 손전화 2개를 사다 달라고 해서 사주었다가 국가보위부가 출처를 묻는 바람에 잡히면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갈까봐 도강하게 됨.	NKHR2017000103 2017-10-23

- 그러나 여전히 뇌물을 주면 처벌이 면제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음.
 - 2014년 양강도 혜산시에 살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국과 밀수를 하기 위해 10년동안 손전화 사용을 했으며, 대체로 손전화 문제는 뇌물(북한돈 2,000~3,000원)로 해결된다고 증언함.⁴⁰⁾
 - 2014년 양강도 혜산시에 살았던 북한이탈주민의 어머니가 불법 손전화로 단속에 걸려 재판소장, 판사,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나왔으며,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1개월,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다고 증언함.⁴¹⁾
 - 2016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손전화로 한국에 통화하다 걸리면 중국돈으로 10,000위안, 중국과 통화하다가 걸린 경우 3,000위안을 주면 해결할 수 있으며, 뇌물을 못주면 노동단련대 등으로 가게 된다고 증언하였으나,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는 않음.⁴²⁾

■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 한편, 뇌물의 금액은 점점 상승하는 추세로 보임.
 - 지금은 1,500~2,000위안은 쥐야(고여야) 하며, 뇌물의 양도 지역마다 다른데, 혜산시라면 5,000위안은 뇌물을 쥐야 함.⁴³⁾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현장에서 10,000위안 정도를 주면 무마할 수 있으며, 돈이 없으면 교화를 가게 되지만, 잡혀간 곳에서도 뇌물을 주면 무마할 수 있다고 증언함.⁴⁴⁾

40) NKHR2016000048 2016-04-19.

41) NKHR2016000078 2016-05-31.

42) NKHR2016000081 2016-05-31.

43) NKHR2020000006 2020-05-15.

44) NKHR2020000019 2020-07-04.

〈표 III-20〉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8년	증언자는 단련대 3달 처벌을 받아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갔지만, 남자친구가 보위지도원이고 돈으로 무마하여 그날로 석방되었음. 주변 친구들도 단속에 걸려도 돈으로 무마해서 단련대에 가지 않으며, 단련대에 가는 사람은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증언함.	NKHR2019000068 2019-08-26
	단속은 심하나, 교화를 몇 년까지 가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으며 보통 1~2년임. 한국 노래를 듣고 단련형 6개월 간 애가 있었는데, 그나마 부모가 뇌물을 줘서 단련형 6개월 만 받음. 부모가 사업을 해서 형을 줄인 것	NKHR2022000007 2022-05-25
2019년	2019년 보천에서 손전화 단속이 많이 심했었음. 정치적 얘기나 비하하는 얘기를 손전화로 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음. 돈없으면 바로 교화소로 가게 됨.	NKHR2023000015 2023-07-27
	일반 학생들은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는데, 증언자의 아들처럼 1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함. 부모들이 자녀를 매장시키지 않으려고 돈을 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임. 위반자의 가정 형편을 보면서 돈을 요구함. 증언자는 처음에 1,000위안을 요구 받았는데,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500위안으로 무마를 했음. 요구하는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루바에서 데려가고, 나중에는 소년교화소로 보냄.	NKHR2023000019 2023-08-02
	규찰대에게 단속당해 걸리면 재수 없는 것임. 휴대전화 안에 있는 노래나 영상, 그림들이 걸리면 비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봄. 중국노래가 걸려도 압수해서 봄. 압수당해 보위부에 걸리면 학교에서도 처벌받지만, 부자집 자식들은 돈 많이 쓰면 나올 수 있었음.	NKHR2021000026-2 2022-05-18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 시청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북한돈 500만원을 주고 처벌을 무마한 적이 있음. 돈이 없다면 부모라도 처벌받게 되어있음.	NKHR2023000018 2023-08-01

5. 단속의 일상과 강화

- 그러므로 단속기관에서는 뇌물을 상납받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손전화기에 대한 단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음.
 -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손전화 단속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길거리나 시장도 단속함. 시·구역 청년동맹, 109상무⁴⁵⁾가 검열하며, 도끼리 교차검열하기도 함.
 - 여기에 더해 가택수색도 강화하고 있음.

〈표 III-21〉 손전화기에 대한 당국의 빈번한 단속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8년	2018년에 손전화 단속을 경험한 바가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길을 가며 통화를 하던 중 109상무들이 단속했다고 증언함. 북한사람들 인식에 109상무라면 무조건 손전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함. 다만 수색 시 보위지도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여줌.	NKHR2019000068 2019-08-26
	손전화 단속은 자주 함. 2018년에 당해봤는데 길에서 신분증 보여주면서 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보여줬는데 음악, 노래, 영상이 있는지 봄. 문자는 보게하지 않음.	NKHR2022000016 2022-06-11

45) 북한 내에서 녹화기 CD-R을 단속하는 상무로서 당, 행정, 보안 검찰, 청년 동맹까지 5개 단체가 합쳐서 조직된 단체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9년	북한이탈주민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있다고 증언함.	NKHR2019000043 2019-07-01
	북한이탈주민은 단속은 늘 있는 일이며 USB와 유사한 매체인 티카드가 꽂혀있으면 무조건 단속을 당한다고 증언함.	NKHR2019000054 2019-07-29
	행인의 주머니를 단속하는 식으로도 손전화를 단속함.	NKHR2020000029 2020-07-06
	주로 보안원이 단속하며 기차 타면 보위부가 단속하며, 옷 입은거 보고 휴대전화가 있을 것 같으면 보자고 함. 북한 주민이라면 80%는 단속을 당해봤을 것임. 길을 지나가다 규찰대가 휴대전화를 그냥 보자고 함. 보고 이상한게 나오면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면서 보안서로 오라고 함. 잘못했다고 사정하면 노골적으로 얼마 가져오라고 함. 휴대전화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0원 정도임.	NKHR2022000015 2022-06-10
	손전화 검열은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예전에 109라는게 617인가로 이름이 바뀌어서 동네에서 자주 단속했음. 많이 단속당하는데 심한 경우엔 교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뇌물이면 되는 경우도 있음.	NKHR2022000018 2022-06-15

6.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 청소년에 대한 단속 증대

- 한편, 청소년의 손전화 보유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다수 확보됨.

〈표 III-22〉 손전화기에 관한 청소년 단속 및 처벌 강화 관련 특이사례

연도	특이사례	증언번호
2018년	길 가다가도 하고 학교에서도 한국 것들이 있는지 검열함.	NKHR2022000034 2022-08-08
2019년	109상무가 수시로 단속하며, 이들에게 걸리면 노동단련대, 심하면 교화소에 감. 처벌 수위는 돈을 얼마 주는지에 따라 다름.	NKHR2022000001 2022-05-13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에 따르면 청년동맹에서 길거리 단속을 실시하는데, 옷차림이 북한식이 아닌 사람의 주머니를 수색하며 손전화가 나오면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함.	NKHR2020000005 2020-05-15
	매일 빈번하게 단속하며 강도도 심해지고 처벌도 심해짐. 20~30대는 길 가다가 휴대 전화를 단속하는 경우도 있음.	NKHR2020000005 2020-05-15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규찰대가 길거리에서 복장이 불량한 사람을 단속해 청년동맹에 넘기면 그때 손전화도 같이 검사를 받으며 가장 흔한 단속이라 증언함.	NKHR2022000006 2022-05-25
	2019년 즈음 길주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듣는 청소년층 애들을 단속 했었음.	NKHR2020000023 2020-07-06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북한돈 500만원을 주고 처벌을 무마한 적이 있음. 돈이 없다면 부모라도 처벌받게 되어있음.	NKHR2023000018 2023-08-01
한국 녹화물에 대한 단속은 심한 편이고, 보안원, 당일꾼, 검찰서 등에서 단속을 함.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목에서 갑자기 가방, 컴퓨터, 녹음기, 휴대전화 등을 단속하는 식임. 집이나 학교에 가서 컴퓨터 검열을 하기도 함.	NKHR2023000019 2023-08-02	

- **가택수색 시 휴대전화의 내용도 단속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도 단속함.**
 - 2019년 탈북한 증언자들에 따르면 109상무가 가택수색을 왔을 때 손전화가 보이면 함께 단속함.⁴⁶⁾
 - 2020년까지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에 따르면, 학교에서 매일 아침 담임선생과 사로칭 지원이 들어와서 손전화를 검사함. 불순녹화물, 남한 노래 등이 있는지 확인함.⁴⁷⁾

46) NKHR2020000001 2020-05-15; NKHR2020000023 2020-07-06.

47) NKHR2020000038 2020-09-26.

IV 평가

-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외부 정보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녹화물 이용 수단이 다변화되면서 일정 정도 당국의 정보통제 하에서 주민의 정보접근 능력이 향상된 측면이 있음.
 - 강남스타일 등 한국 음악에서 한국 영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도 한류가 싹트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통제하고 있으며, 단속의 빈도수 또한 더욱 높아지는 추세임.
 - 비사그루빠에 컴퓨터 전문가를 포함시킨다는 증언도 존재함.
 - 최근에는 영장 없이 또는 인민반장을 대동하지 않고도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증언이 늘고 있음.
- 특히, 녹화물 유포 및 시청·청취 행위에 대해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대형, 노동단련대 등 인신구속, 공개처형, 강제 추방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파악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단순 시청과 비교해 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하며, 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존재함.
- 그러나 무엇보다 처벌의 수위가 가장 높은 경우는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한 것이며, 한국방송 녹화물 시청에 대한 처벌은 공개재판 및 무기징역이나 심한 경우 사형까지도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황이 심각한 만큼 한국 녹화물 시청에 대해서는 뇌물을 제공해도 무마하기 어렵다는 증언도 동시에 존재함.
-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녹화물 차단을 위한 단속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으로 파악이 되며, 이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대한 욕망을 당국이 원천 봉쇄하기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 작동함.
 - 물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면서 위축된 측면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불법 녹화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대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개폭로모임’ 등 공개적인 비판 방식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주민의 한국 및 외국 녹화물에 대한 접근을 북한에서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관료들의 부패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욱더 범죄자로 내모는 주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금전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자살로 내몰거나 탈북을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는 일부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청년들에 대한 당국의 정보접근 통제와 단속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퇴학에서 비판 무대에 세우거나 단련대, 심하면 교도소에도 보내고 있다는 증언도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북한에서 인권이 더욱 침해되고 있다는 근거가 됨.
- 무엇보다 북한에서는, 시청보다는 이러한 녹화물을 유포한 ‘유포죄’의 처벌이 무거운데, 젊은 세대의 경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보유하거나 다루는 데 있어 기성세대보다 더 익숙하여 자연스럽게 정보를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이 더욱 당국에 의한 정보접근을 침해받고 무거운 형량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음.
 - 유포죄가 적용될 경우, 가족들이나 친구들까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젊은 세대는 이러한 엄격한 환경과 처벌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도 확보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이 제정된 이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언에 미루어 보아 이러한 법이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보접근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심각한 요인임을 뒷받침함.
 - 특히, 최근 휴대전화의 경우, 한국 노래나 드라마와 같은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자 등에 남한말투 사용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북한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휴대전화와 비공식적인 중국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았던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단속과 처벌은 중국 휴대전화에 집중되어 있었음.
 -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휴대전화가 주로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과의 연락, 도강 및 송금 증개, 밀수·밀매, 인신매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휴대전화에 대한 당국의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하고 있음.
 - 휴대전화는 기동성이 높은 관계로 길거리에서도 수시로 검열을 당해 검열이 일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인이 됨.
 - 특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도 단속함.
- 이와 동시에 국내 휴대전화 자체가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하므로 당국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주민의 좋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08년 이후 국내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초기에는 블루투스 등을 통해 당국에서 통제하는 불법 복제 등이 성행하면서 당국은 이를 막는 다양한 기술적 통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2014년 전후로 추정되는 증언들이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휴대전화는 비법적인 것이 이미 다 막혀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중국 휴대전화에 비해 따로 단속이 없었다는 증언도 수집됨. ©KINU 2024